



7 명의 Munck Wilson Mandala 변호사 “Texas Rising Star”s 에 선정되다

2019 년 3 월 4 일 지적재산권 및 상용소송과 고용법 소송 등을 담당하는 Munck Wilson Mandala 의 7 명의 변호사들이 2019 년 “Texas Rising Star” 에 선정되었다.

Thompson Reuters 에서 발행되는 “Texas Rising Stars” 는, 추천 후보 지명과 후보자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같은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타 변호사들의 검토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지명하고 발표한다.

특히, “Texas Rising Stars”에 선정된 본 로펌의 Sarah Lopano, Lauren Mitchell, 그리고 Jordan Strauss 변호사는 “Texas Rising Stars” 에서 발행하는 “Super Lawyers” 의 “Women’s Edition” 에도 소개되어질 예정이다.

Munck Wilson Mandala 의 대표 변호사인 William Munck 는, “우리 로펌에는 재능있고 자기일에 열성을 다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헌과 노력에 대한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2019 년 “Texas Rising Stars”에 선정된 변호사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9 년도 “Texas Rising Stars”에 선정된 7 명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다:

Wallace Dunwoody –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Neil Ferrari – Intellectual Property
Marc Kaliser – Business/Corporate
Jacob LaCombe – Intellectual Property
Sarah Lopano – Business Litigation
Lauren Mitchell – Employment Litigation: Defense
Jordan Strauss –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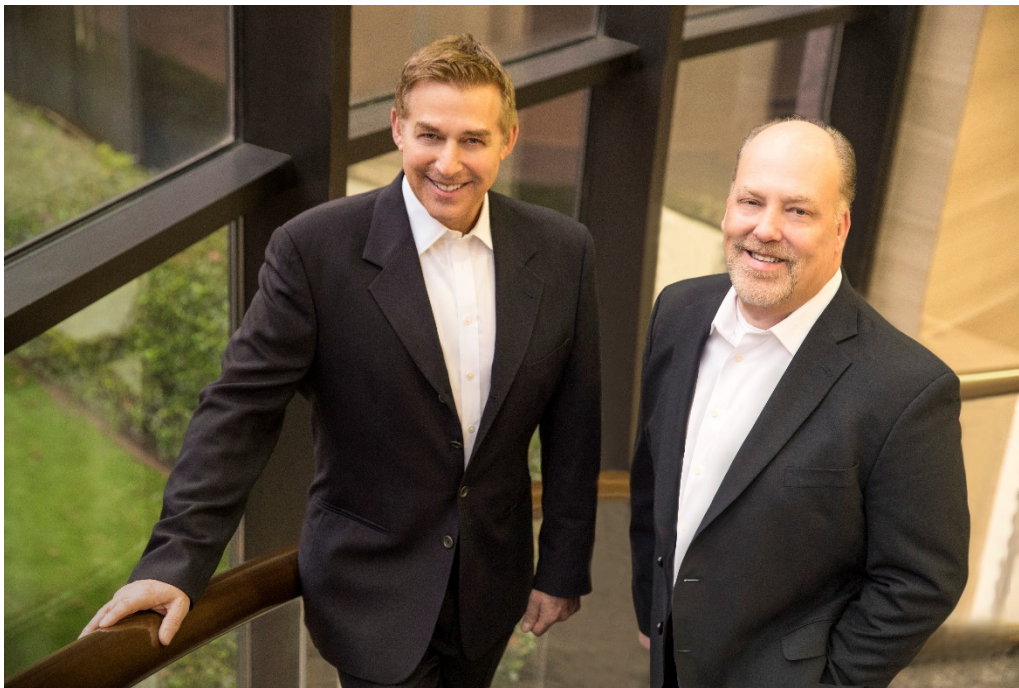
Munck Wilson Mandala 는 기술중심의 로펌으로서 텍사스 주의 달라스, 오스틴 및 마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본 로펌은 지적 재산권 소송과 복잡한 상업 소송,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 개발과 기업거래 및 비즈니스 자문, 그리고 고용법 분야에서의 풀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회사부터 Fortune 50 대 기업에 이르는 클라이언트들을 대리하고 있다.

그 외의 Munck Wilson Mandala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unckwilson.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로스 앤젤레스의 Hecker Law Group 을 Munck Wilson Mandala 가 합병하다

Munck Wilson Mandala 는 Hecker Law Group 과의 합병으로 인해 40 여명의 특허 변호사를 갖추게 되었다.

By **Brenda Sapino Jeffreys** | January 07, 2019 at 07:00 AM



달라스에 자리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로펌인 **Munck Wilson Mandala** 와,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두고있는 지적 재산권 로펌인 로스 앤젤레스 소재의 **Hecker Law Group** 이 최근 합병을 공식화 하였다.

Munck Wilson Mandala 는 이번 합병을 통해 Hecker Law Group 의 대표 변호사인 Gary Hecker 등 3 명의 변호사들이 본 로펌에 합류하면서 약 40 여명의

특허 변호사를 구성하게 되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Munck Wilson Mandala 는 현재 총 70 여명의 변호사들이 텍사스 주의 달라스, 오스틴 및 마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로스 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파트너 변호사인 Amanda Greenspon 을 중심으로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 다음 사무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William Munck 는 로스 앤젤레스의 사무소를 합병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지만, 회사의 한 컨설턴트가 그를 Gary Hecker 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두 로펌이 함께 함으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합병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병합 건이 기술 중심의 전문인력을 갖춘 중소 규모의 본 로펌에게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덧붙였다.

Gary Hecker 는 본 합병 이전에 약 18 개월 동안 자신이 이끄는 Hecker Law Group 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Munck Wilson Mandala 와의 합병을 통해서 M&A 와 고용 법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지적재산권 소송 및 다양한 실무 경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Munck Wilson Mandala 의 뛰어난 실무능력과 높은 실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변호사들이 매우 영리하며 성품 또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식적인 합병일은 2019 년 1 월 1 일 이다. Gary Hecker 는 Munck Wilson Mandala 의 파트너로 새로이 자리매김 하였고, 그에 따라 Hecker Law Group 에 속해 있던 J.D. Sadighi, Chase Covello, 그리고 James Slominski 도 본 로펌과 함께하게 되었다.

Hecker Law Group 은 복잡한 특허 소송 뿐만 아니라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초상권, 고위 경영진에 대한 상담 및 조언에 관련된 실무를 해 왔으며, 주요 클라이언트들에는 Appel, Pixar, Visa, ADP, Mark Burnett Productions, Barefoot Sound, The Women's Conference, Young Hollywood,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owerJazz semiconductor 등이 있다.

William Munck 는 2-3 년 내로 로스 앤젤레스 사무소의 변호사 수를 20 여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8 년 최고의 소송팀: Munck Wilson Mandala

Munck Wilson Mandala William 의 대표 변호사인 Munck 는 90 년대 중반부터 첨단 기술회사들을 타겟으로 한 소송로펌을 설립하기에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텍사스 주의 저렴한 생활비와 우수한 공립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 기술 회사들에 깊은 인상을 받고, 텍사스야말로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By **John Council** | 2018 년 8 월 31 일 06:00 AM

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William Munck 는 1990 년대 중반부터 최고 수준의 소송로펌을 설립하기 위해 완벽한 장소를 찾아나섰고, 당시 지적 재산권 로펌들이 집중되어 있던 실리콘 벨리와 워싱턴 디씨, 그리고 뉴욕을 차례로 방문한 그는, 동부와 서부 해안을 모두 거부하고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 소송 로펌을 설립하였다.

롱 아일랜드 태생으로 컴퓨터 공학과 전기 엔지니어였던 William Munck 는, Hofstra 대학의 법대를 2 년만에 졸업 한 후, 텍사스 주의 저렴한 생활비와 우수한 공립대학교, 그리고 텍사스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첨단 기술 회사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텍사스야말로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곳이라 판단하였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당시 저는 제 아내에게 텍사스 주의 달라스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디씨, 혹은 뉴욕보다도 더 나은 곳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로펌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창안함으로써 달라스만큼 나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로펌 중 상당수가 특허변호사, 혹은 소송 대리인을 확보하여 기술회사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그 중 많은 회사가 두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관련 기술을 갖춘 특허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동과 고용 관련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우리 고객의 기반은 70% 가 첨단 기술관련 회사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 로펌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로펌이 아닌, 지적재산권 및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로펌을 목표로 하여왔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타 로펌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unck Wilson Mandala](#) 는 두 분야의 다른 변호사들을 하나의 사건에 같이 배정하였다.

“특허 변호사들이 특허 소송에 강할 것이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단지 그들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요. 우리는 모든 사건에 특허변호사와 소송전문 변호사를 함께 배정함으로써 하나의 특허 및 소송 팀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실례로 수년 동안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왔습니다.”

2017 년 달라스의 연방 법원 진행된 닌텐도 사에 대한 천만 달러의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은 그 동안 Munck Wilson Mandala 가 추구해 온 완벽한 사례이다. Munck Wilson Mandala 는 달라스 기반의 기술 회사인 iLife 를 대리하여, 게임 업계의 거물인 닌텐도의 Wii 게임 시스템에 사용 된 움직임 감지 장치 (Motion-detection device)가 iLife 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 Munck 와 iLife 의 인연은 20 년 전, 그가 움직임 감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20 년 후 중소 기업으로 성장한 iLife 가 닌텐도와 연방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William Munck 는 본 로펌에서 가장 소송 경험이 많은 Michael Wilson 에게 사건을 맡겼다.

예심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닌텐도의 법률 대리인인 Devon Pritchard 의 발언 중, Wii 가 어떻게 닌텐도의 법률 대리인인 Devon Pritchard 의 가족들을 함께 모이게 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고, 그녀의 94 세 조모가 Wii 볼링 게임을 얼마나 즐겼는지를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도중에 일어났다. 소송대리인 Michael Wilson 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증언은 Wii 의 성공이 iLife 가 발명 한 기술보다는 “마리오” 와 같은 닌텐도의 상징적인 캐릭터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로펌의 Jordan Strauss 변호사는 닌텐도의 “Cube” 제품의 실패를 예로 들며 반대 심문을 이어갔다. 닌텐도 Cube 는 마리오와 같은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사용한 게임들을 출시하였으나 판매율은 저조하였고, Wii 스포츠는 마리오가 아닌 아바타를 내세워 게임을 즐기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닌텐도의 법률 대리인인 Devon 가족은 마리오가 아닌, 가족들의 아바타로 Wii 스포츠 게임을 가족들과 함께 즐겼다는 뜻이 된다. 그녀가 아바타로 Wii 를 즐긴다고 해서 갑자기 그녀의

아바타가 마리오와 같이 닌텐도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부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심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배심원들은 크게 웃었고 iLife 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본 로펌의 Jordan Strauss 변호사의 매력에 배심원들이 크게 매료되었다며 Michael Wilson 은 후일담을 전했다.

이례적으로 젊은 변호사인 Jordan Strauss 에게 반대 심문을 맡긴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Michael Wilson 은, “만약 누군가가 상대편 대리인을 심문했어야 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Michael Wilson 은 소송 당시를 회상하며, 파트너인 Wallace Dunwoody 와 Shain Khoshbin 을 포함한 그의 소규모 변호인단이 닌텐도를 대리하는 훨씬 더 큰 변호인단과 어려운 법정소송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우리팀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서 상대팀은 한 순간에 대형 Cooley 로펌의 20 명의 변호사들을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 앉히며 압박감을 주려했습니다” 라고 Michael Wilson 은 회상했다.

그리고 2017 년 말에 닌텐도가 미국특허청에 낸 특허무효심판 (IPR, Inter Partes Review) 시도에 실패 하자, Munck Wilson Mandala 변호사들은 또 다시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iLife 의 동일한 특허를 변호하게 되었다.

본 로펌은 달라스 기반의 iLife 와 같은 소형 기업 뿐만 아니라 Raytheon, Honeywell, Southwest Airlines 및 Galderma Laboratories 와 같은 많은 유명 대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60 여명의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약 30 여명의 변호사가 지적재산권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 변호사들이다.

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William Munck 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약 20% 정도가 달라스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이고, 그 외의 80% 는 타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입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이언트들과도 비지니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달라스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20 년 전 내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말을 끝맺었다.

